광주·전남 기업, 설연휴 최대 5일 쉰다

기아차 5일, 금호타이어·삼성전자 4일 휴무

상여금 지급업체 60%… 작년보다 13%P 줄어

광주·전남지역 대기업들은 올해 설 연휴에 최대 닷새를 쉬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중소기업들도 나흘~닷새의 연휴를 갖는 기업이 90%로 조사됐다.

23일 산업계에 따르면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은 오는 30일부터 2월3일까지 5일 동안 설 연휴를 갖는다. 설 명절 연휴는 4일이지만 올해 설 연휴가 일요일과 겹쳐 하루를 더 쉰다. 기아차는 상여금으로 통상 임금의 50%를 지급하며 귀향비 80만원, 선물비 25만원을 각각 추가로 지급한다.

금호타이어는 광주공장과 곡성공장 모두 30일부터 2월2일까지 나흘 동안 쉰다. 워크아웃 중인 금호타이어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지만, 노사임금협상에 명시된 기본급 50% 수준의 격려금을 이번 설 연휴에 맞춰 지급한다.

삼성전자 광주사업장도 30일부터 2월2일까지 나흘간 공장가동을 멈춘다. 설 상여금은 기본급의 100%이지만 연봉에 포함됐기 때문에 별도 지급은 없다.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의 90%도 이번 설 최대 닷새의 설 연휴를 보낸다.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지역중소기업 115곳 가운데 89.6%가 4일~5일을 쉴 것이라고 응답했다. 3일 휴무는 5.2%, 1일~2일 휴무 2.6% 순으로 조사됐다.

체감경기 악화로 인해 설 상여금 지급예정 업체는 60.7%로 전년도(73.6%)에 비해 12.9%포인트나 하락했다. 설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업체는 5.1%로 전년도(10.3%)에 비해 하락했지만 상여금 지급을 결정하지 못한 업체도 13.0%에 달했다. 상여금은 평균 71만7000원 수준이었다.

순천상공회의소가 순천 등 동부권 기업들을 조사한 결과, 62%는 설 상여금이나 성과급을 지급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98%는 4일 이상 휴무를 가질 예정인 것으로 집계됐다.

여수산업단지의 GS칼텍스를 비롯, LG화학, 롯데케미칼, 한화케미칼 등 석유화학업체는 생산직이 평소처럼 교대로 근무를 계속하고, 사무직만 30일부터 나흘간 휴무할 예정이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풍년 덕봤다"… 배 설 선물 1위

대형마트 매출 분석

지난해 풍작으로 가격이 크게 내린 배가 대형마트 설 선물 가운데 가장 많이 팔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트는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21일까지 설 신선식품 선물 매출을 분석한 결과 배 판매가 작년동기보다 63% 늘며 1위에 올랐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신선식품 선물 1위는 한우였다. 배는 3년 만에 가장 많은 매출을 기록했다.

2012년 설 선물 2위였던 팔렸던 굴비는 지난해 5위로 밀린 데 이어 올해는 아예 5위밖으로 밀려났다.

홈플러스는 지난 16일 시작한 설 선물세트 매출이 지난해와 비교해 18.3% 증가했고, 특히 멸치·견과·건 버섯 등 건식 선물의 신장이 두드러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견과류 선물 판매는 지난해의 3배 가까운 197% 급증했고, 건 버섯(137%)·멸치(31.7%)·김(10.1%) 등도 많이 팔렸다.

신선식품 전체로도 견과류 매출이 다섯번째로 많았고, 멸치는 뒤를 이은 6위로 창사 이래 처음으로 굴비를 제친 것으로 전해진다. 굴비는 11위로 떨어졌다.

롯데마트에서는 사과·배 혼합세트가 설 선물 매출 1위를 차지했고, 이어 배 선물세트가 사과를 밀어내고 2위로 올라섰다.

/연합뉴스

"카드 부정사용 2차 피해없다"

신제윤 금융위원장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23일 금융권의 고객 정보 유출과 관련해 "카드 부정사용이나 2차 피해는 없다"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의 카드사 고객정보유출사고 관련 긴급 현안보고에 참석해 의원들의 2차 피해 우려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검찰이 유출된 정보가 유통되지 않았다고 수차례 명확히 밝혔고, 사고 발생 1년이 넘은 시점에 카드사고가 없었으며 그동안 피해보상 요구가 없었다는 점을 볼 때 카드를 굳이 바꿀 필요는 없다"며 안심하고 사용해도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출된 고객 정보로는 카드 복제도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징벌적 과징금 제도에 대해서는 "금융사의 매출 규모를 고려할 때 천억대가 부과될 수도 있는 사실상 상한선이 없는 제도"라며 "정보 유출만 하더라도 5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다른 법체계 등과 함께 연구해 볼 부분"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연합뉴스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광주은행, 상반기 경영전략회의 광주은행(은행장 김장학)은 23일 오후 광주은행 본점 3층 대강당에서 임직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 상반기 경영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은 지난해 우수한 실적을 거둔 영업본부와 지점에 대한 시상식 모습. 〈광주은행 제공〉

광주·전남 지난해 어음부도율 0.29%

지난해 광주·전남지역 연중 어음부도율이 0.29%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2013년중 광주·전남지역 어음부도율은 전년(0.43%)보다 0.14%포인트 하락한 0.29%를 기록했다.

광주지역이 0.49%로 전년(0.61%)보다 0.12%포인트, 전남지역이 0.12%로 전년(0.29%)보다 0.17%포인트 각각 하락했다.

2013년 중 신설법인수는 4629개로 전년(4158개)에 비해 471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 12월 중 광주전남지역 어음부도율은 0.23%로 전달(0.11%)에 비해 0.12%포인트 상승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모든 금융사 오늘부터 긴급 보안 점검

금감원, 고객 피해 최소화 24시간 비상근무

금융당국이 카드사의 1억여건 개인 정보를 유출에 따른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4시간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다. 은행, 카드, 보험, 증권 등 모든 금융사는 이르면 24일부터 긴급 자체 보안 점검을 시행한다.

정보 유출 카드사에는 금융당국 인력을 24시간 배치해 카드 재발급 지연 등 고객 민원을 실시간 해결해 주기로 했다. 국민은행, 농협은행, 국민카드, 롯데카드, 농협카드 등 정보 유출 금융사는 고객 민원이 평상시 수준으로 줄어들 때까지 평일 영업시간을 연장하고 주말 영업을 계속하기로 했다. 결제내역 문자서비스 무료 제공에 이어 기본 연회비 면제까지 추진된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금융사의 1억여건 정보 유출에 따른 소비자 불편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이기연 부원장보를 단장으로 비상지원반을 꾸렸다.

금감원 상호여전감독국과 상호여전검사국 등 직원 30여명으로 꾸려졌으며 금감원은 24시간 비상근무에 돌입했다.

이는 개인 정보 유출에 불안해하는 수많은 고객이 은행과 카드사에 밀려들고 있으나 민원 대응이 원활하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다. 최수현 금감원장의 긴급 지시 사항이다.

다른 금융권의 정보 유출 실태 파악을 위해 금융당국은 보안 점검 체크리스트를 24일께 모든 금융사에 보내 세밀한 자체 점검을 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 체크리스트는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와 더불어 이번 정보 유출을 일으킨 위탁·용역업체 관리 실태가 집중 점검 대상이다.

금융당국은 내주까지 점검 실태를 받아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금융사에는 현장 점검과 경영진 면담을 통해 긴급 시정을 요구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금융 소비자 불편을 해소에도 직접 나선다.

국민카드, 롯데카드, 농협카드에는 18명의 금감원 직원이 투입돼 카드사들이 약속한 결제내역 확인문자 무료 서비스와 카드 재발급, 콜센터 대응 등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직접 점검하게 된다. 기존에 결제내역 확인 문자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은 자동으로 무료 전환하도록 카드사를 압박할 방침이다. 현재 무료 문자 서비스는 신청자에 한해 이들 카드사가 적용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이트진로 봉사단' 9기 발대식

하이트진로(주)(대표 김인규)가 운영하는 '하이트진로 봉사단'은 22일 광주그랑시아웨딩홀에서 8기 단원들의 봉사활동 수료식과 함께 새롭게 남·여학생 45명으로 구성된 9기 단원들의 발대식을 가졌다.

2013년 7월부터 활동을 시작한 8기 하이트진로 봉사단은 매월 2회씩 광주천 정화활동, 무등산 등산로 정화활동, 패밀리 전문요양원, 틔움 복지재단 봉사활동을 실시하며 6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새롭게 출범한 9기 하이트진로 봉사단은 1월부터 6월까지 9기 활동을 시작한다.

한편 하이트진로(주) 광주지점(지점장 성동욱)과 특판광주지점(지점장 최태종)은 올 해도 지역민에게 다가가는 지역마케팅과 사회환원사업 등을 펼칠 예정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하이트진로 봉사단 8기와 9기 단원들이 지난 22일 광주그랑시아웨딩홀에서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을 다짐하고 있다. 〈하이트진로 제공〉